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9, pp.51-104
<https://doi.org/10.29212/mh.2023..129.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와 반월성*

김강훈 | 구미중학교 교사

- 목 차
1. 서론
 2.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3.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4.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5. 결론

초 록 이 글은 시기적으로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공간적으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검토한 연구이다.

포천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가 지나기에 선사시대부터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삼국시대 한강 유역의 관장체계와 전쟁'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남정을 계기로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고구려는 한강~임진강 유역에 다수의 관방시설을 축조하였는데, 포천지역에는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다른 교통로에 비하여 빈약하다. 포천 일대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기에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고구려가 원산만 일대의 예(말갈)를 동원하여 한강 하류 유역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반월성은 관방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고, 고구려는 성동리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

603년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며 철원-포천-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608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며 철원-포천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고구려는 지금의 반월성으로 추정되는 낭비성을 차지하며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였다. 629년 신라는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여 낭비성을 빼앗았으며,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신라가 대고구려 전쟁, 대당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제어 : 고구려, 신라, 한강유역, 포천, 반월성, 성동리산성, 낭비성

(원고투고일 : 2023. 10. 9, 심사수정일 : 2023. 11. 13, 게재확정일 : 2023. 11. 16.)

1. 서론

지금의 경기도 포천(抱川)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선사시대부터 서북·동북 지역의 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되는 교차로이자 주민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었다.¹⁾ 특히 서울과 원산을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잇는 약 160km 길이의 추가령 구조곡은 일찍부터 한반도 동북부와 중서부를 연결하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는데, 포천지역은 이 경로상에 위치한다.

포천지역은 수계로는 임진강 유역에 포함된다. 임진강 유역은 크게 임진강 본류 유역과 한탄강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진강의 제2차 지류인 영평천은 포천시 이동면의 광덕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포천시 남단 소흘읍 축석령에서 발원한 포천천은 북쪽으로 흐르며 포천 분지를 지나 영평천과 합류하는데, 임진강의 제3차 지류이다.²⁾ 한편 포천시 내천면 수원산에서 발원하는 왕숙천은 남서쪽으로 흘러 남양주를 지나 한강으로 흐른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영평천-포천천-포천 분지-왕숙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통해 임진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성동리산성, 반월성, 고모리산성 등 포천지역의 성곽은 대체로 이 교통로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³⁾

1) 배기동, 「선사시대」, 『抱川郡誌(上)』, 1997, 153~155쪽.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포천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文昌魯, 「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 『韓國學論叢』 38, 2012 참조.

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임진강-』, 2001, 64~65쪽.

3)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경, 2006, 305~311쪽 ;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문화』 25-2, 2022, 260~261쪽.

포천지역의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월성은 1994년 지표조사부터 2001년 6차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유구와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삼국의 유물이 출토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반월성의 활용 양상이 검토되었다.⁴⁾ 이는 반월성을 629년 고구려와 신라 간에 전투가 발생한 낭비성으로 비정하는 계기가 되었다.⁵⁾ 그리고 반월성에서는 지속적인 보수공사와 이와 연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⁶⁾

이후 낭비성 전투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攻防戰)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고, 삼국시대 한강 유역에서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이 확인되었다.⁷⁾ 한편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의 일부가 발굴 조사되었으며 성동리산성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⁸⁾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남진기와 신라 북진기 성동리산성의 활용 양상과 위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⁹⁾

개별 관방시설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루어졌다. 신라가 반월성을 중심으로

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5)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1995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 2010.

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2009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성 남벽』, 2019. 최근까지 이루어진 반월성의 보수공사 현황은 윤성호,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先史와 古代』 67, 2021, 288~289쪽 참조.

7) 徐榮一,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 2001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 2014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 2019a ; 박종서, 「6세기 중반~7세기 高句麗·新羅의 境界와 그 변천」, 『사학지』 62, 2022.

8)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9) 백종우,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 2004.

구축한 포천지역 산성의 방어체계가 검토되었으며, 포천지역의 영유 주체가 고구려에서 신라로 바뀌면서 나타난 관방체계의 변화상도 간략히 언급되었다.¹⁰⁾

더불어 한강·임진강 일대 관방체계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는 과정에서 포천지역 관방시설의 위상과 역할이 검토되었다. 고구려는 임진강 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를 따라 관방체계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포천천로가 포함되어 있다.¹¹⁾ 신라가 한강 유역을 영역화하며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철원 방면 방어에 중심축으로 포천지역의 위상을 설정한 연구도 있다.¹²⁾ 한편 한강 유역을 둘러싼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 속에서 관방체계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려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포천지역 관방시설이 가지는 의미가 언급되었다.¹³⁾ 최근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성동리산성과 성동리 마을유적이 재차 주목받았다.¹⁴⁾

기왕의 발굴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

10) 徐榮一, 「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영속관계」, 『文化史學』 6·7, 1997 ;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72~279쪽.

11)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 3, 경기도박물관, 1999 ; 白種伍, 「南韓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 2007.

12)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이 논문에서는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형성과정을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정비하는 1단계, 한강 이북으로 방어체계의 중심을 이동하고 임진강, 한탄강 유역을 방어선으로 삼아 방어체계를 확대하는 2단계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1단계와 2단계는 604년을 중심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13)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8 ; 백종오, 앞의 논문, 2022.

14)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20쪽, 27쪽.

며,¹⁵⁾ 반월성 출토 고구려 유물과 유구에 대한 해석에도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먼저 반월성 출토 유물과 유구 중 고구려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물·유구를 검토하여 고구려가 5~6세기에 반월성을 군사·행정 거점으로 활용했는지를 논의하겠다. 이어서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검토하여 포천지역이 군사적으로 부각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7세기 초 중반 전개된 고구려-신라 전쟁과 나당전쟁의 과정에서 신라가 구축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 관방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의 관방시설 운용 양상

「광개토왕릉비」 영락(永樂) 6년조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58성 700촌을 공취하였다. 58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¹⁶⁾ 적어도 예성강 또는 임진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 지역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58성 가운데 포천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¹⁷⁾

15) 반월성의 석축 성벽을 초축한 국가에 대해서는 백제와 신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남벽 일부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체성벽 내벽 토축부와 주거지, 수혈에서 백제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발굴단은 백제가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반월성 남벽을 축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9).

16) 58성의 위치 비정에 대한 여러 견해는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점령」,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169~170쪽; 朴鐘書,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70~71쪽 참조.

17) 포천 자작리유적에서 전체 길이 23.6m의 대형 '여(呂)'자형 주거지와 동진대 청자편 및 백제기와편이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포천 자작리 일대는 한성백제기 지

그런데 포천지역의 향방을 알려주는 문헌사료가 없어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가 포천지역을 지속적으로 영유했는지 불확실하다. 고구려군이 귀환하고 백제가 반격을 시도하면서 한강 이북~임진강 이남의 일부 지역을 백제가 회복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고구려가 백제의 지방 지배 거점이었던 반월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점령지 지배에 활용하였다고 보는 견해¹⁹⁾나 고구려가 409년 축조한 국동 6성을 임진강 유역으로 비정하면서 반월성을 그중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²⁰⁾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포천지역이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지배에 들어갔으나 이후 다시 백제의 영역으로 귀속되었거나,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변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²¹⁾

475년 장수왕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 도성인 한성을 함락하면서, 고구려는 한강 유역 일대를 영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포천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제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 고구려조에서 지금의 포천 일대의 고구려 지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방의 정치적 거점 취락으로 추정된다(경기도박물관, 『抱川 自作里遺蹟』 I, 2004). 따라서 광개토태왕대 고구려가 백제를 공략하면서 포천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적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18)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景仁文化社, 2014, 67~68쪽.
 19) 김선숙, 「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 『서울학연구』 69, 2017, 57~58쪽.
 20) 최영인, 「4세기~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 『청람사학』 31, 2020, 71~80쪽.
 21)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선이 아닌 면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이 임진강~한강 분수령 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거나(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203~205쪽), 고구려와 백제가 예성강 이남-임진강 이북 지역을 접경공간으로 하면서 대치하였다고 보는 견해(정동민, 앞의 논문, 2022, 173~176쪽)가 참고가 된다.

- A. 臂城郡 一云馬忽 內乙買 一云內乙米 鐵圓郡 一云毛乙
冬非 梁骨縣 僧梁縣 一云非勿 功木達 一云熊閃山²²⁾

비성군(臂城郡)은 지금의 포천 분지 일대인데 마홀(馬忽)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비성군에 속한 내을매(內乙買)는 동두천시 송내동²³⁾ 또는 연천군 청산면 일대²⁴⁾로 비정된다. 비성군의 북쪽에는 철원군(鐵圓郡)이 있었다. 철원군은 지금의 철원군 철원읍이며, 철원군에 속한 양골현(梁骨縣)은 포천시 영중면, 승랑현(僧梁縣)은 연천군 신서면, 공목달현(功木達縣)은 연천군 연천읍으로 비정된다.²⁵⁾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조의 원전에는 비록 통일신라 시기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지만, 고구려 지명과 영속 관계는 고구려 시기 제성(諸城)의 분포와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로와 제성의 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²⁶⁾ 그렇다면 고구려가 설치한 비성군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합류하는 전곡을 기준으로 한탄강과 영평천을 거슬러 올라가 양주 분지와 포천 분지로 들어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철원군에 속하였던 영평은 철원평야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한탄강·영평천 유역으로 남하하는 교통로를 관리하였을 것이다.

포천지역의 관방 유적 중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확인된다고 알려진 곳은 반월성과 성동리산성이다. 먼저 반월성은 포천시

22) 『삼국사기』 권37, 잡지(雜志)8, 지리(地理)4, 고구려, 한산주

23)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4-주석편(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52쪽.

24) 서영일, 앞의 책, 1999, 293~294쪽.

25) 장창은, 앞의 책, 2014, 14쪽;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 2019, 46~47쪽.

26)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48~55쪽.

군내면 구읍리에 소재한 청성산(해발 283.5m) 정상을 둘러싸고 축조된 테뫼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080m이다. 산성의 전체적인 형태가 동-서로 길쭉한 반월형(半月形)이기에 반월성으로 불린다. 반월성의 동서 방향에 높은 산지가 있으며, 남서쪽으로 포천 분지의 비교적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동북쪽으로는 포천 분지에서 철원 방면으로 향하는 교통로가 있다. 따라서 반월성은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산성의 남쪽에는 구읍천, 북서쪽은 포천천이 흐르면서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 포천 분지 일대 지형과 수계



〈그림 2〉 포천 반월성과 주변 지형



반월성 1차 발굴조사에서 ‘마홀수해구초(馬忽受蟹口草)’명 기와가, 3차 발굴조사에서 ‘마홀(馬忽)’, ‘마(馬)’, ‘홀수(忽受)’, ‘해(蟹)’명 기와가 출토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5세기 후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축조하면서 ‘마홀수해구초’명 기와가 제작되었다고 추정하면서²⁷⁾, 이를 통해 반월성이 고구려 마홀군의 치소였다고 해석하였다.²⁸⁾ 그러나 이 명문은 일제강점기에 경기 하남 선동에서 채집된 명문 기와와 연관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작 시기는 8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²⁹⁾ 그렇다면 반월성이 고

27)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蟹口單>銘 기와의 考察」, 『史學志』 29, 1996.
 28)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44쪽.
 29) 김규운·성재현,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 국립중앙박물관, 2011, 575~577쪽. 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통일신라 후기~고려 초로 추정된다. 최근 기와 명문의 지명과 신라 말 지방통치체제의 동요 등을 근거로 경덕왕 16년(757)과 진성왕 3년(889)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박성현, 「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 2021, 44~45쪽).

구려 마홀군의 치소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반월성 출토 ‘마홀(馬忽)’명 기와를 이해하기보다는, 포천 분지 일대가 고구려의 마홀이었다는 사실을 유물을 통해 확인하였다³⁰⁾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반월성에는 서치성, 동치성, 남치성 등 3개소의 치성이 확인된다. 이 중 서치성은 잘 치석한 대형 기단석, 들여쌓기, 기단부 모서리의 굽도리 양식, 치성의 평면 사각형 형태 등을 근거로 고구려가 축조했을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하였다. 그리고 서치성 인근 헬기장 주변에서 고구려 토기편과 적갈색의 고구려계 기와가 출토되었다고 한다.³¹⁾ 그런데 조사단은 고구려 토기류로 추정할 수 있는 개체수가 적으며 정확한 층위에서 수습된 것이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고구려계 기와는 와적층에서 신라 기와와 뒤섞여 출토되었고 제작 방식이 고구려 기와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³²⁾

더하여 조사단이 제시한 서치성의 축조 방식이 한강 유역의 신라 성곽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반월성 서치성과 하남 이성산성 치성이 형태적 특징, 크기, 축조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반월성 치성의 축조 주체를 신라로 이해하기도 한다.³³⁾ 또한 고고학적 속성분석과 통계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반월성 출토 기와가 모두 6~9세기 신라 기와라고 보는 연구도 참고가 된다.³⁴⁾

30)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1쪽.

3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478~479쪽, 495쪽; 金虎俊, 「抱川 半月山城 研究(Ⅰ)」, 『文化史學』 20, 2003, 60~61쪽;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 2006, 29쪽.

3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3쪽; 金虎俊, 앞의 논문, 2003, 61쪽; 방유리, 앞의 논문, 2006, 30쪽.

33) 車敏浩, 「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9~71쪽.

34) 徐奉秀,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21.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지속적으로 군사·행정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임진강 유역, 양주 분지, 아차산 일대에 고구려 관방시설이 밀집 분포하고 있고 기와가 출토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고구려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교통로 중 다른 교통로에 비해 포천천을 경유하는 교통로에 대한 감제를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천보산 보루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근래 경기 북부지역 보루의 감시권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천보산맥 동쪽의 천보산 3·4·5보루는 포천 분지와 포천에서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조망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루에서 고구려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신라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포천 분지에서 왕숙천을 따라 한강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감시하는 보루도 확인되지 않는다.³⁵⁾ 따라서 포천천로-포천 분지-왕숙천로-한강 북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고구려 관방시설의 존재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포천 분지를 지나 한강 북안으로 이르는 교통로 운영과 관련한 곳으로 성동리산성을 꼽을 수 있다. 성동리산성은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잣골의 해발 180m의 잔구성 산지에 축조된 테피식 산성으로, 둘레는 401.9m이다. 성의 동남쪽으로 영평천이 흐르며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영평천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포천천과 합쳐지고 이어서 한탄강에 합류한다. 따라서 성동리산성은 서쪽으로 하천로를 따라 연천으로 연결되며, 포천-철원 방향의 남북교통로를 조망하는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35) 이상의 내용은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 2010 참조.

성동리산성 내에 적갈색 기와가 일부 확인된다고 한다. 이를 임진강 유역의 덕진산성, 호로고루 등에서 출토된 고구려 기와와 연결하여 이해하기도 한다.³⁶⁾ 그러나 문양, 측면 분할, 내면 상태 등에서 차이점도 확인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³⁷⁾ 성동리산성은 한강~임진강 유역의 여타 고구려 관방시설에 비하여 고구려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이다.

한편 성동리산성의 남쪽 500m 지점에 있는 성동리 마을유적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 동북쪽 기둥구멍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편은 내외 흑갈색 내지 황색의 연질토기로 토기 외면에 두 줄의 횡선과 길이 7cm 정도의 장타원문이 횡으로 연속하여 시문되어 있다.³⁸⁾ 파편이기에 기형을 알 수 없으며 제작 시기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³⁹⁾ 하지만 몽촌토성에서 유사한 동이류 동체부편이 다수 출토되었는데 몽촌토성 고구려 토기가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는 점⁴⁰⁾, 6세기 전반경으로 편년되는 아차산 4보루 출토 고구려 토기와 문양이 유사하다는 점⁴¹⁾을 고려한다면, 이 유적은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⁴²⁾ 따라서 고구려는 5세기 후반~6세기 중반경 성동리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포천지역 일대를 경영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고구려 토기가 발견된 성동리 마을유적 2호 주거지의 내부퇴적층에서 백제 토기, 신라 토기가 함께 출토되었

36)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7, 34~36쪽.

37) 白種伍·玄男周, 「抱川 城洞里山城 精密地表調査 報告」,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379쪽.

38)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40~41쪽.

39) 양시은,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 2014,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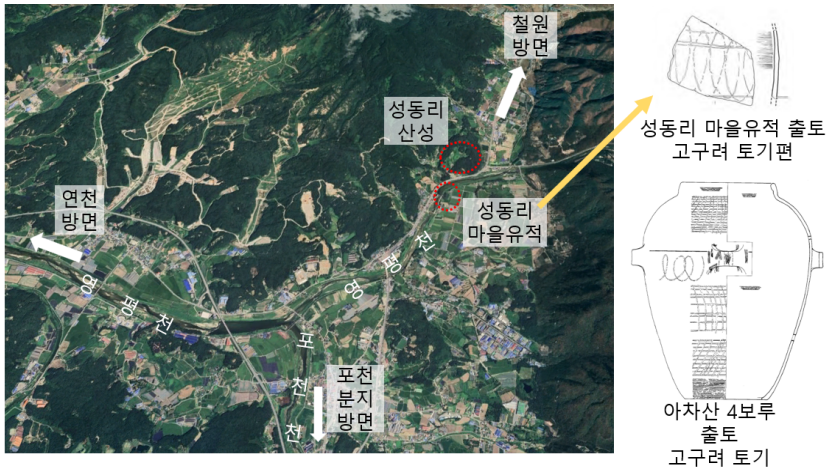
40) 최종택, 「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118쪽.

41) 백종오, 앞의 책, 2006, 110쪽 ; 신광철, 앞의 논문, 2022, 20쪽.

42) 백종오, 앞의 논문, 2004, 295쪽 ; 백종오, 앞의 책, 2006, 110쪽.

다.⁴³⁾ 따라서 성동리산성이 군사적 거점을 넘어 영역 지배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림 3〉 포천 성동리산성, 성동리 마을유적과 주변 지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는 교통로를 따라 포천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관철시키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포천지역은 한강~임진강 유역의 주요 교통로에 비해 관방시설을 비롯한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희박하다. 이는 4세기 이래 고구려의 남방 교통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4세기 초반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되면서,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백제와 대결하였다. 4세기 중후반 고구려와 백제는 예성강 유역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⁴⁴⁾ 그리고 광개토왕을 거쳐 장수왕대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는데, 그 경로는 황해도를 가로지른 뒤 임진강을 건너 한강 하류로 이어

43) 고구려 토기가 수습된 주거지에서 백제와 신라 토기가 확인되며 해당 지역이 삼국의 접경지라는 점으로 고려하면, 영평천을 기준으로 신라와 고구려의 영역이 유동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신광철, 앞의 논문, 2022, 27쪽).

44) 장창은, 앞의 책, 2014, 49~53쪽.

진다. 그리고 고구려는 경기 중남부를 지나 대전, 세종지역까지 진출하였다.⁴⁵⁾

고구려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경로는 400년 신라 구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왜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5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평양에서 수안-신계-이천-평강/철원을 지나 화천-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영서 내륙 교통로를 따라 이동하여 죽령을 넘어 경주에 도착했다고 짐작된다.⁴⁶⁾

〈그림 4〉 고구려의 백제, 신라 방면 주요 남진로



- 45)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 2019b에서는 관방시설의 배치와 유형 구분을 통해 '5세기 이전 임진강-한탄강 유역으로 남진→5세기 중반 영서 내륙 지역으로 남진하여 충주, 대전으로 진출→475년 한강을 도하여 탄천을 따라 용인 일대로 남하' 순서로 고구려의 남진이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 46) 고구려의 남진로에 대해서는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2000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2006 ; 금경숙,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韓國史學報』 11, 2011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 2023 참조.

고대 국가는 대외전쟁, 지방통치, 수취체제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통로를 정비하고 관리하였다. 국가 권력의 중추인 도성은 각 방면으로 간선교통로가 출발하는 기점이었기에, 교통로는 도성을 중심으로 방사형을 띠기 마련이었다.

고구려는 평양을 출발하여 백제와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는 남진로를 별개로 운영하였다고 짐작된다.⁴⁷⁾ 고구려가 백제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1차 목표는 백제의 도성이 위치한 한강 하류 유역이었다. 신라 방면 진출은 영서 내륙 지역을 경유하여 한반도 중부지역의 거점인 충주를 목표로 했다고 추정된다.

포천은 임진강 유역에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기에, 백제 도성 방면으로 남진하는 고구려군 중 일부는 포천 일대를 공략하거나 경유하였을 것이다. 다만 한탄강-영평천-포천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므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는 시기에는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에서 임진강을 건너 하천을 따라 내려와 양주 분지를 지나 아차산 일대로 가는 교통로가 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포천지역은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로 인해 고구려 관방시설이 치밀하게 조성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원산 일대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한강 하류 유역을 침공할 세력을 상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백제 초기부터 동북방에서 말갈이 백제를 침공한 기록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 말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조선 후기 이래로 대체로 동예로 이해하고 있다.⁴⁸⁾ 고구려는 후한(AD 24~

47) 박종서, 앞의 논문, 2023에서 고구려의 남진로를 7개의 경로로 구분하고 그 명칭을 시점, 종점, 주요 거점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여하였다. 그중 백제 주공격로를 '한성로(웅진로)', 신라 주공격로를 '신라왕경로'로 명명하였다.

220) 말 동예를 복속시켰는데,⁴⁹⁾ 그 이후부터 고구려는 예(말갈)를 동원하여 원산만 일대에서 서남 방향으로 남하해 백제를 공격하였던 것이다.⁵⁰⁾

백제는 철원, 연천, 포천 일대에 마수성, 병산책, 석두성, 고목성, 적현성, 사도성 등 관방시설을 두어 말갈의 침입에 맞섰다.⁵¹⁾ 포천 분지의 남단에 위치한 고모리산성은 백제가 초축한 성곽인데, 이른 시기부터 백제가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침입하는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관방시설을 축조하였음을 보여준다.⁵²⁾ 그런데 고구려가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한 이후에는 예(말갈)가 한강 하류 유역을 공략할 이유가 사라졌다. 따라서 고구려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에 관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백제의 성곽을 재활용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반월성을 비롯하여 포천지역에서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빈약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변화가 감지된다. 반월성에서 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신라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7세기 중엽에는 성벽 수축이 이루어지고 성안에 기와 건물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⁵³⁾ 그리고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48) 기존의 견해에 대해서는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77~80쪽 ; 김진광, 『『三國史記』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 2009, 12~17쪽 ;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남진」, 『한국상고사학보』 105, 2019, 152~158쪽 참조.

49)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예. “漢末更屬句麗”

50)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76~178쪽.

51) 구체적인 위치 비정은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600쪽, 606쪽, 626쪽 참조.

52) 윤성호, 「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방성(백제학연구총서 정접백제사21)』, 한성백제박물관, 2022, 137~138쪽.

5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4~535쪽.

의 짧은 시기 동안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반월성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탐색해 보겠다.

3. 7세기 초반 고구려와 신라의 공방전

6세기 중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⁵⁴⁾ 고구려는 왕위 계승 분쟁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 분쟁의 여파를 수습해야 했고 신라는 대백제전에 국력을 집중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양국은 한강 이북 및 임진강 이남 지역을 완충지대로 삼아⁵⁵⁾ 대치하면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였다고 생각된다. 한강 유역 출토 신라 토기와 성벽 축조 양상을 통해 한강 이북 신라 산성이 7세기 전반 이후 활용되었다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도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⁵⁶⁾

54) 579~597년은 삼국이 국내 정세로 전쟁을 멈춘 일종의 소강기·휴전기였다고 한다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講兵」, 『新羅史學報』 52, 2021, 15~16쪽).

55)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장창은, 앞의 책, 2014, 234쪽.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85~91쪽에서는 북한산비가 정계비라는 입장에서 북한산비가 세워진 북한산 줄기에서 임진강과 한강의 분수령을 따라 양국의 경계가 정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산 산줄기에서 임진강에 이르는 지역을 완충지대로 이해하였다.

56)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포천지역과 관련하여, 포천 성동리 마을유적에서 출토된 고배와 뚜껑 등의 잔편은 7세기 이후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한다(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경문화사, 2021, 314쪽). 반면에 연천 대전리산성, 포천 반월성, 양주 대모산성 등 임진·한탄강 수계권의 산성에서 6세기 중반경의 신라 토기가 출토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박중서, 앞의 박사학위논문, 2022, 179~180쪽).

그런데 6세기 말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양국의 충돌은 고구려 멸망까지 이어지게 된다. 수가 중원을 통일하여 새로운 국제질서가 수립되던 정세 속에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의 회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였다.⁵⁷⁾ 6세기 말 아단성(阿旦城) 전투⁵⁸⁾와 603년 북한산성(北漢山城) 전투는 한강 유역을 회복하여 독자세력권을 재건하려는 고구려의 대외정책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아단성 전투에 대한 신라 측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신라군의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삼국사기』 온달전(溫達傳)에도 신라군과 고구려군이 아단성 아래에서 전투를 치른 정황이 드러날 뿐이다. 다만 온달이 출정에 앞서 맹서하는 장면이 곧이어 아단성 전투 중 온달이 화살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고구려군의 전과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라는 전투 전후 아단성을 계속 영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고구려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던 것이다.

북한산성 전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관련 기록이 전하고 있다.

57)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 여호규, 「7세기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외교적 선택」,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 2019.

58) 『삼국사기』 권45, 열전5, 온달. 아단성 전투의 시기와 아단성의 위치에 대한 여러 논의는 윤성호, 「『삼국사기』 溫達傳 所載 阿旦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 2017과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城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 2018 참조. 필자는 아단성의 위치 문제에 대해 각 논의가 나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에 향후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가 축적되기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에 공감하는 입장이다(정호섭, 「三國史記 溫達傳을 통해 본 온달의 역사적 위상과 阿旦城」, 『한성사학』 29, 2014 ;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새문사, 2016, 167~179쪽). 구체적인 아단성의 위치 비정을 논외로 하더라도 온달이 한강 유역의 회복을 목표로 했기에 출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비정하지 않고 한강 유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B-①. 왕이 장군 고승(高勝)을 보내 신라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왕이 병력을 이끌고 한수(漢水)를 건너오니, 성안에서 북을 치고 떠들썩하니 서로 호응하였다. 고승이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어 이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⁵⁹⁾

B-②.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입하였다. 왕이 몸소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물리쳤다⁶⁰⁾

사료를 보면, 603년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군대를 이끌고 북한산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진평왕이 직접 1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구원전에 나섰다, 고구려군은 병력의 열세를 염려하여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때의 북한산성은 지금의 아차산성으로 비정된다.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명문기와 가운데 ‘북(北)’, ‘한(漢)’, ‘북한(北漢)’, ‘한산(漢山)’ 등이 다수 보이는데, 이를 종합하면 ‘북한산성(北漢山城)’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¹⁾

북한산성 전투에서 주목할 점은 진평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참전했다는 것이다. 국왕의 군령권 집행방식은 국왕이 친히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에 나서는 친솔형(親率型)과 예하 신료를 대행자로 삼아 전쟁을 치르게 하는 교견형(教遣型)으로 나뉘는데, 신라에서는 친솔형과 교견형이 병존하다가 5세기 중반을 분수령

5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4년 8월.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 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眾我寡 恐不克而退”

6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5년 8월.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61)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205~207쪽;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史叢』 32, 2014, 32쪽. 최근 아차산성 발굴조사에서 「北漢山城」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아차산성이 북한산성임이 더욱 확실해졌다(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의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 2019c).

으로 교전형으로만 대외전쟁을 치르게 된다.⁶²⁾ 따라서 7세기 초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에 1만 명의 병사를 ‘친솔(親率)’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는 백제의 공격을 받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지만 국왕이 전쟁에 ‘친솔’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강 유역을 고수하려는 신라 왕실의 의지가 매우 컸다고 짐작할 수 있다.⁶³⁾

이와 관련해 철원 고석정(孤石亭)에 진평왕이 이 지역을 순행하고 세운 비가 존재했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싶다.⁶⁴⁾ 대체로 629년 낭비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승리하고 철원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신라비를 건립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⁶⁵⁾ 최근에는 신라가 고구려-수 전쟁을 틈타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했다는 기록과 연관하여 598~614년의 어느 시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⁶⁾ 둘 다 진평왕 재위 기간 중 신라의 영역이 확장된 시기를 주목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진평왕이 실제 철원으로 순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다. 따라서 603년 북한산성 전투에 진평왕이 친솔한 기사에 눈길이 간다. 진평

62)李文基, 「新羅 中古期 軍令體系의 檢討」, 『新羅文化』 9, 1992, 43~50쪽 ; 『新羅 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280~289쪽.

63) 진흥왕이 확보한 영역을 사수하여 왕권 강화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견해(황보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軍史』 58, 2015, 55~56쪽)와 군령권자로서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견해(장창은, 「삼국시대 전쟁의 발발과 시대적 의미」, 『新羅史學報』 45, 2019, 82쪽)도 있다.

6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강원도, 철원도호부, 누정(樓亭), 고석정(孤石亭). “在府東南三十里 岩石竦立 東臨淵水 世傳 新羅眞平王高麗忠肅王嘗遊山亭” 고석정에 있었다는 신라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충숙왕대 승려인 무외(無畏)가 남긴 「고석정기(孤石亭記)」이고 이후 여러 문집에서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김진한,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韓國文化』 83, 2018, 148~155쪽에서 상세히 연구되었다.

65) 徐榮一, 앞의 논문, 1995, 35쪽 ;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43쪽 ;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朶城 전투」, 『軍史』 81, 2011, 35~36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21쪽.

66) 김진한, 앞의 논문, 2018, 162~163쪽.

왕이 한반도 중부지역에 순행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림 5〉 진평왕 순행 추정로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에 이어서 철원으로 순행했다면, 이는 고구려군의 공격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603년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으로 진출한 경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먼저 고구려군이 임진강을 건넌 후 양주 분지와 중랑천을 거쳐 북한산성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⁶⁷⁾ 다음으로 고구려군이 반월성에서 출발하여 왕숙천을 따라 내려와 구리를 거쳐 북한산성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⁶⁸⁾ 마지막으로 이천, 평강을 거쳐 철원과 포천 분지의 한탄강-영평천-포천천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67)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63쪽;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345~346쪽;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 『서울학연구』 81, 2022, 120쪽.

68)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 2016, 104쪽.

남하하였을 가능성이이다.⁶⁹⁾

이 중 세 번째 견해에 주목하고 싶다. 먼저 고구려군이 신라 관방체계의 저항을 받지 않고 북한산성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물론 임진강에서 양주 분지를 따라 한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 신라 관방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정황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⁷⁰⁾ 하지만 관방시설의 밀도 면에서 철원-포천지역이 더 조밀하지 못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관방시설을 재활용하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포천지역의 관방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정황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진평왕이 북한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철원으로 순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고구려군의 퇴각로가 진군로와 동일하다면⁷¹⁾, 신라군은 퇴각하는 고구려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철원지역이 군사지리적으로 요충지임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604년 남천주를 없애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하였다.⁷²⁾ 이것이 신라의 적극적인 북진 의지⁷³⁾ 내지 신라의 세력 확대⁷⁴⁾를 의미한다면, 북방 거점의 북진은 한강 하류 유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영서 내륙 지역에서도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세기 후반~7세기 초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 거점은 춘천

69)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50~51쪽. 이와 관련하여 6세기 중반 이후 신라가 양주분지의 보루군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면서 고구려의 임진강 도하처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고구려는 영평천의 성동리산성 방면으로 남진로를 개척하였다고 이해하는 연구가 주목된다(박중서, 앞의 논문, 2022, 87쪽; 박중서, 앞의 논문, 2023, 32쪽).

70) 장창은, 앞의 책, 2014, 304쪽;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63쪽.

71) 황보 경, 앞의 논문, 2015, 56쪽.

7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6년. “廢南川州 還置北漢山州”

73)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34~335쪽에서 진흥왕 18년(557) 신주(新州)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설치한 것은 한강 이북으로 ‘적극적인 북진의 의기(意氣)’를 나타낸다고 해석하였다.

74) 李相勳, 「羅唐戰爭의 軍事的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 경계』 79, 2011, 17쪽;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75쪽.

의 봉의산성으로 추정된다.⁷⁵⁾ 그런데 북한산성 전투 이후 신라는 영서 내륙 지역에서 춘천의 북방에 위치한 철원지역에 주목한 듯하다.

철원 일대는 서울-원산 간 교통로와 영서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절절지이자⁷⁶⁾, 철원-포천 경로를 통해 한강 하류 유역을 압박할 수 있는 곳이었다.⁷⁷⁾ 또한 춘천지역으로부터 후방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였다. 더불어 서북 군사요충지인 북한산주와 동북 군사요충지인 비열홀을 연결하는 중간 경유지로서의 의미도 부각되었을 것이다. 결국 진평왕은 철원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직접 이 지역을 순행하고 비를 남겼던 것이다.⁷⁸⁾ 그렇다면 북한산성에서 철원으로 연결되는 교통로 및 이를 관장하는 관방시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졌을 것이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는 608년 재차 신라를 공격하였다. 관련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신라본기에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

C-①. 봄 2월 장수에게 명하여 신라의 북경(北境)을 습격하니 8천 명을 붙잡아 왔다. 여름 4월 신라의 우명산성을 빼앗았다.⁷⁹⁾

75)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2쪽.

76) 서영일, 앞의 논문, 2006, 56쪽.

77) 장창은, 앞의 책, 2014, 318쪽.

78) 철원에서 신라 유물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성곽은 동주산성, 성산성이다. 신라 진출 초기에는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위치한 둘레 약 250m의 냉정리산성(할미산성)이 부대이동의 감시, 보급로 확보, 통신 기능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는데, 영역화가 진전되자 행정·군사 거점을 겸할 수 있는 동주산성과 성산성이 축조되었다고 한다(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 2013 ;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 2022).

7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9년. “春二月 命將襲新羅北境 虜獲八千

C-②. 2월 고구려가 북경(北境)을 침입하여 8천 명을 붙잡아 갔다. 4월 고구려가 우명산성을 빼앗았다.⁸⁰⁾

608년 2월 고구려가 ‘신라 북경(北境)’, 즉 신라의 북쪽 경계 또는 북쪽 경역(境域)을 침략하여 8천 명을 잡아갔고, 4월 고구려가 신라의 우명산성(牛鳴山城)을 공격해 빼앗았다. 이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전지인 ‘신라 북경’과 우명산성의 위치를 비정할 필요가 있다.

우명산성은 안변(安邊), 양구(楊口), 춘천 등으로 비정되고 있다. 안변설은 음운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다.⁸¹⁾ 우명산성의 우명(牛鳴)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안변도호부조에 기록되어 있는 철원수(鐵垣戍)의 철원(鐵垣)이 둘 다 ‘쇠울’로 훈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戍)는 고려시대 지역방어의 거점인 주진성(州鎭城)을 보조하는 군사시설로서,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거나 소규모 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전방 초소의 역할을 하였다.⁸²⁾ 특히 동계 지역에 설치된 수는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소규모 적에 대한 감시·통제·방어를 위해 설치된 전방 초소 내지 보루로 추정되며, 바다를 조망하기 유리한 바닷가 연변의 산이나 곳에 주로 위치했다.⁸³⁾ 실제 철원수는 안변도호부 동쪽 파천사(派川社)

人 夏四月 拔新羅牛鳴山城”

8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30년. “二月 高句麗侵北境 虜獲八千人 四月 高句麗拔牛鳴山城”

81)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 1970, 41쪽;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상),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532쪽; 강중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신라문화』 24, 2004, 11쪽;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 2014, 169쪽; 전덕재, 「신라 진흥왕의 순행과 순행로 고찰」, 『신라사학보』 57, 2023, 31쪽.

82) 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鎭軍」,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61~263쪽; 宋容德, 「高麗時期 國境地域의 州鎭城編制」, 『韓國史論』 51, 2005, 95쪽.

83)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軍史』 99, 2016.

해구(海口)에 위치한 작은 석성(石城)이다.⁸⁴⁾ 만약 고구려가 동해안 방면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면, 평양성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은 육상교통로를 따라 신라의 동북방 거점인 비열홀(比列忽)로 진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철원수는 안변 동쪽의 바닷가에 위치하여 해상에서 침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을 감시하기 적절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 즉, 고구려의 공격 방향과 맞지 않는 곳에 위치한 것이다. 더구나 철원수는 고려가 설치한 관방시설일 뿐 신라가 이 지역에 산성을 축조하고 활용했다는 기록 내지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하다.⁸⁵⁾

우명산성을 강원도 양구로 비정하는 견해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양구현 남쪽 40리에 우명산(牛鳴山)이 있다는 기록⁸⁶⁾에 근거한다.⁸⁷⁾ 방향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동지지』의 우명산은 지금의 봉화산(烽火山)으로 비정된다. 「여지도서(輿地圖書)」, 「해동지도(海東地圖)」 등 조선 후기 지도를 보면 양구현 남쪽에 위치한 고개 내지 산정에 봉수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 선조 대에 봉수대 설치를 계기로 봉화산으로 불리게 되면서⁸⁸⁾ 본래 이름인 우명산은 잊힌 듯하다. 그런데 현재 봉화산에는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⁸⁹⁾ 그리고 양구지역은 당시 영서 내륙 지방의 간선교통로에서 벗어나

8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9, 함경도, 안변도호부, 고적(古跡). “鐵垣戍 在府東派川社海口有小石城 世稱戍城 在江原道歙谷縣境”

85) 삼국시대 ‘우(牛)’계 지명이 임진강~강릉·삼척을 잇는 선을 북방 한계로 하여 백제와 신라 영역에서만 발견된다는 연구도 참고가 된다(오강원, 「三國時代 ‘牛’系地名의 歷史地理學的 脈絡과 性格」, 『江原民俗學』 22, 2008).

86) 『대동지지』 권15, 강원도, 양구, 산수(山水). “牛鳴山 南四十里”

87) 金侖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娘臂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史學志』 21, 1987, 260쪽. 이 논문에서는 인제군(麟蹄郡) 남면(南面) 소양강 부근이라 하였는데, 현재 행정구역으로 양구군 남면이다.

88)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권』, 2008, 680쪽.

89)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楊口郡·麟蹄郡 軍事遺跡 地表調査報告書」, 2002, 171~172쪽.

있기에 고구려가 공격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춘천으로 비정하는 견해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명의 유사함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⁹⁰⁾ 춘천의 옛 지명이 우두(牛頭) 내지 우수(牛首)이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7세기 초 신라가 한강 하류 유역과 안변 일대를 안정적으로 영유하던 형세 속에서 고구려가 영서로(嶺西路)를 통해 춘천 일대로 진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거나,⁹¹⁾ 고구려가 북한산성 공략에 실패하자 신라의 한강 하류 유역 방어 거점을 우회하여 북한강 상류 유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춘천지역을 공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⁹²⁾

5세기에 고구려는 이천-평강/철원-화천-춘천-홍천-원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신라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신라는 춘천지역에 637년(선덕왕 6) 우수정(牛首停)을 설치하였으며⁹³⁾ 나당전쟁기에는 군단을 배치·증설하였다.⁹⁴⁾ 이는 춘천 일대를 통하여 남하하려는 고구려군과 당군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즉 춘천은 북방에서 신라 방면으로 남진을 시도할 때 거쳐야 할 요충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영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우명산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할 수

90)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7쪽;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27쪽.

91) 張彰恩,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高句麗의 南進과 對新羅 領域向方」, 『民族文化論叢』 55, 2013, 440쪽; 앞의 책, 2014, 307~308쪽.

92)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1쪽.

93) 『삼국사기』 권35, 잡지(雜志)4, 지리2, 신라, 삭주(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 置軍主” 우수주의 설치는 우수정(牛首停)의 설치를 의미한다(李文基, 앞의 책, 1997, 110~111쪽; 전덕재,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 2009, 95쪽).

94)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78, 2015;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韓國學論叢』 47, 2017;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110, 2023.

있다.⁹⁵⁾

고구려군은 우명산성을 공격하기 앞서 ‘신라 북경’을 공략하였다. 고구려가 608년 일련의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추정되기에⁹⁶⁾, 당시 교통로와 고구려군의 진공 방향을 감안한다면 ‘신라 북경’은 춘천 북쪽의 화천, 철원, 김화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608년 고구려는 ‘신라 북경’, 즉 철원 일대를 공격하여 성을 빼앗지 않고 포로를 붙잡아 가는데, 여기서 철원지역에 신라의 방어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608년 고구려가 철원, 춘천 일대를 공략한 것은 신라가 철원을 중심으로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망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데 있었다고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우명산성까지 빼앗으면서 고구려의 반격이 성공을 거두지만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다시 신라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수의 연이은 침공으로 고구려의 군사력은 요동 방면과 평양성 방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타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500리를 차지하는 전과를 올렸다.⁹⁷⁾ 결국 신라와 고구려는 7세기 초 한강 하류 유역과 영서 내륙 지역을 둘러싸고 일진 일퇴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 하류 유역과 철원 일대를 연결하는 교통로의 중

95) 박중서, 앞의 논문, 2022, 67쪽.

96) 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7쪽.

97)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정월. “玄獎論以勿侵新羅 蓋蘇文謂玄獎曰 我與新羅 怨隙已久 往者 隋人入寇 新羅乘釁 奪我地五百里 其城邑皆據有之 自非歸我侵地 兵恐未能已” 신라가 고구려 영역 500리를 빼앗은 시기를 598~614년으로 폭넓게 잡는 견해가 있는데(徐榮一, 앞의 논문, 2001, 36쪽), 608년 고구려가 영서 내륙 지역에서 신라 영토를 획득한 점을 고려한다면 신라의 북진 시기는 608년 이후로 좁힐 수 있다. 따라서 612~614년 고구려가 수와 총력전을 치르는 틈을 타 신라가 고구려 영역을 차지했다고 이해하는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장창은, 앞의 책, 2014, 310쪽). 신라가 차지한 고구려 땅 500리를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연결되는 삼방로 일대로 추정하기도 한다(윤성호, 「신라의 임진강 유역 진출과 대고구려 경계의 형성」, 『한국고대사탐구』 41, 2022, 62~63쪽).

요성이 점차 부각되었고 포천지역의 군사적 중요성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629년에 일어난 낭비성 전투가 주목된다.

4. 629년 낭비성 전투와 신라의 관방체계 구축

608년 ‘신라 북경’과 우명산성에서의 전투 이후 신라와 고구려가 충돌한 지점으로 명확히 기록된 곳은 낭비성(娘臂城)이다. 629년 발생한 낭비성 전투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①. 왕이 대장군 용춘(龍春)과 서현(舒玄), 부장군 유신(庾信)을 보내 고구려 낭비성을 침공하였다. 고구려인들이 성을 나와 진을 벌이니 군사의 기세가 매우 성하여 우리 군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 유신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찢히고 버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내가 버리와 옷깃이 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적진으로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 세 번 들어가고 세 번 나왔는데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장수의 목을 베거나 깃발을 뽑았다. 여러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어 죽이니, 그 성이 이에 항복하였다.⁹⁸⁾

9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1년 8월. “王遣大將軍龍春舒玄副將軍庾信侵高句麗娘臂城 麗人出城列陣 軍勢甚盛 我軍望之 懼殊無鬪心 庾信曰 吾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乃跨馬拔劍 向敵陣直前 三入三出 每入或斬將或奪旗 諸軍乘勝 鼓噪進擊 斬殺五千餘級 其城乃降”

D-②. 건복(建福) 46년 기축 가을 8월 왕이 이찬 임말리(任末里), 파진찬 용춘과 백룡(白龍), 소관 대인(大因)과 서현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내어 맞아 공격하니 우리 편이 불리해져 죽은 자가 매우 많았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꺾여서 다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유신은 이때 중당당주(中幢幢主)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였다. “우리 군사가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충효를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쟁에 임해서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듣건대, ‘옷깃을 들면 가죽옷이 퍼지고 벼리를 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하니 제가 그 벼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이에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는 갱을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이를 보고 승세를 타고 힘써 공격하여 5천여 명을 목 베어 죽이고 1천 명을 사로잡으니, 성안에서 두려워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⁹⁹⁾

신라는 629년 김용춘을 대장군으로 한 원정군을 조직하여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였다. 전투 초기에는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으로 신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사기마저 떨어지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 그런데 김유신의 분전을 계기로 승세를 타, 결

99)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建福四十六年己丑秋八月 王遣伊滄任末里波珍滄龍春白龍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城 麗人出兵逆擊之 吾人失利 死者衆多 衆心折衄 無復闘心 庾信時爲中幢幢主 進於父前 脫胄而告曰 我兵敗北 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 盖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迺跨馬拔劍 跳坑出入賊陣 斬將軍 提其首而來 我軍見之 乘勝奮擊 斬殺五千餘級 生擒一千人 城中兇懼無敢抗 皆出降”

국 신라군은 고구려군 5,000여 명을 죽이고 1,000명을 사로잡 으면서 낭비성의 투항을 이끌어내며 승리하였다.

먼저 낭비성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여러 연구가 있었다. 청 주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보는 견해¹⁰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칠중성으로 파악하는 견해¹⁰¹⁾, 함경도 덕원·안변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¹⁰²⁾, 포천 반월성으로 비정하는 견해 등이 제기되 었다. 이 가운데 6~7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대는 경기도 북부지역이라는 점, 포천의 고구려 지명이 비성군(臂城郡)이었다 는 점, 반월성에서 ‘마홀’명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포천의 고구려 지명과 일치한다는 점, 반월성에서 7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고구려 고고자료와 그 이후의 신라 고고자료가 함 께 확인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건대, 낭비성은 포천 반월성 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¹⁰³⁾

고구려가 반월성으로 진출한 시기는 사료에서 확인할 수 없 다.¹⁰⁴⁾ 629년 이전에 고구려가 남방 진출을 시도한 바는 608년 ‘신라 북경’ 및 우명산성 공격이 있다. 앞서 서술한 바대로 신라

100)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 『史學志』 10, 1976 ; 이도학,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 死處 阿旦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32, 2013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2023, 131~138쪽.

101) 金侖禹, 앞의 논문, 1987, 278~282쪽.

102) 池內宏, 「眞興王之戊子巡境碑と新羅の東北境」,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吉川弘 文館, 1960, 27~28쪽 ; 정원주, 「榮留王之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 研究』 40, 2011, 26쪽 ; 김진한, 앞의 논문, 2018, 164쪽.

103) 서영일, 앞의 논문, 1995 ; 박중서, 앞의 논문, 2010, 140~143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18~319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1~182쪽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 박중서, 앞의 논 문, 2022, 71~86쪽.

104) 590년대 전반,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할 때 고구려군이 반월성에서 출 발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590년대 전반 이전에 고구려가 낭비성을 차지하였다 고 이해한다(전덕재, 앞의 논문, 2023, 30쪽). 또는 620년대 대당관계가 안정되 어 남방으로 진출할 여력이 생기면서 고구려가 낭비성을 차지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장창은, 앞의 책, 2014, 320쪽).

는 603년 북한산성 전투 승리를 계기로 북한산성-포천-철원을 잇는 교통로를 따라 철원 일대까지 진출하여 이곳을 신라의 영역으로 삼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608년 철원과 춘천 등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고구려군의 일부가 철원 일대에서 북한산성 방향으로 이동하여 낭비성을 차지했다고 이해된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가 현존하는 반월성 전체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토 유물과 입지 등을 고려하면 서치성 일대¹⁰⁵⁾나 장대지 주변 고지대¹⁰⁶⁾에 소규모 관방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림 6〉 반월성 중 고구려 보루 추정지



신라는 고구려-수 전쟁을 기회로 삼아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단행하여 500여 리를 획득하면서 영서 내륙 지역을 재차 확보하였지만, 반월성은 여전히 고구려군의 수중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625년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가 조공로를

105)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4, 533~534쪽.

106)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2쪽.

막으려고 하며 거듭 침입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¹⁰⁷⁾ 비록 신라가 과장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일정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623~628년 신라는 거의 매년 백제의 침입을 받았으며, 627년 백제 무왕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대병(大兵)을 웅진에 주둔시켰다.¹⁰⁸⁾ 따라서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실제로 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고구려가 반월성을 전초기지로 한강 하류 유역을 위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신라군은 단순히 반월성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군도 마찬가지였다. 죽거나 포로가 된 고구려군이 6,000명이라는 사실은 낭비성 전투에 동원된 고구려군과 신라군의 병력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낭비성 전투 당시 고구려군 총병력을 7,000~8,000명, 신라군 총병력을 최소 10,000명으로 추산한 연구가 참고가 된다.¹⁰⁹⁾ 신라 병사들이 고구려군의 군세(軍勢)를 보고 두려워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므로, 적어도 고구려군은 신라군과 맞먹는 병력을 동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군에는 포천 일대 관방시설에 배치된 병력뿐만 아니라 임진강 유역에서 동원된 병력도 상당수를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동원한 병력 중 상당수를 잃었다. 따라서 신라군은 반월성 북쪽에 위치한 성동리산성과 포천 분지에서 연천 방면으로 나아가는 위치에 있는 연천 대전리산성 일대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¹¹⁰⁾ 그렇다면 신

10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47년 11월. “遣使大唐朝貢 因訟高句麗塞路使不得朝 且數侵入” ; 『구당서』 권189상, 열전139상, 유학, 주자사(朱子奢). “貞觀初 高麗百濟同伐新羅 連兵數年不解 新羅遣使告急”

108)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무왕 28년 7월. “王欲復新羅侵奪地分 大舉兵 出屯於熊津”

109)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 2016, 37쪽.

110)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85쪽과 박중서, 앞의 논문, 2022, 85쪽에서는 더 나

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함으로써 임진강을 신라와 고구려의 경계로 삼고 한강 하류 유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자 낭비성 전투를 추진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¹¹¹⁾

낭비성 전투 이후 반월성의 군사적 기능이 확대되고 포천지역 및 한강 유역에서 접하는 군사적 위상도 높아졌을 것이다. 7세기 중반 성벽의 수축, 동문지 건설, 대형 건물의 건축 등이 시행되었다고 보는 발굴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반월성을 중심으로 남북, 동서 방향의 교통로를 따라 관방시설이 축조되어 포천지역의 관방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로 추정된다.¹¹²⁾ 남북방향으로 냉정리산성-성동리산성-반월성, 동서방향으로 연천 대전리산성-고소성-주원리산성-성동리산성이 각각 철원-포천-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임진강-연천-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¹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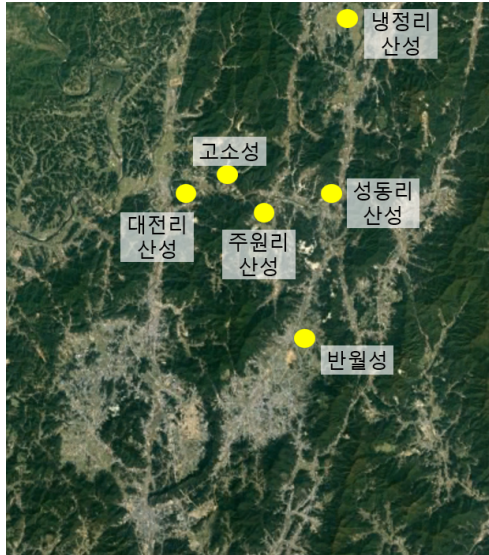
아가 철원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고구려-수 전쟁 때 신라가 철원 일대를 확보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11) 김강훈, 앞의 논문, 2020, 195쪽.

112) 權純珍,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 2007, 35~36쪽.

113) 포천지역 산성의 배치와 관방체계에 관해서는 서영일, 앞의 논문, 1997 참조.

〈그림 7〉 포천 일대의 신라 관방시설



신라가 포천지역에 구축한 관방체계가 이후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 양상은 사료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7세기 중반 한반도 중부 일대에서 전개된 전투 기록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660년 10월 고구려는 신라의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은 칠중성을 포위하였고, 이에 맞서 신라는 20여 일을 버텼지만 결국 신라군을 지휘하던 필부는 전사하였다.¹¹⁴⁾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칠중성은 임진강과 적성 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특별한 장비 없이 임진강을 도강할 수 있는 지점이 칠중성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¹¹⁵⁾ 따라서 고구려는 임진강 중류 유역과 한강 하류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한 칠중성을 함락해야

11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 무열왕 7년 11월 ; 『삼국사기』 권47, 열전7, 필부.

115) 서영일, 앞의 책, 1999, 251쪽.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661년 5월 고구려는 말갈과 함께 경기도 여주 일대로 추정되는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자 북한산성으로 옮겨가 공격하였다.¹¹⁶⁾ 진격로는 고구려-신라 간의 주요 교통로인 영서 내륙 지역을 지나는 노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철원-화천-춘천-홍천-양평-여주¹¹⁷⁾ 내지 춘천-홍천-원주-여주¹¹⁸⁾를 상정할 수 있다.¹¹⁹⁾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술천성 공격을 단행한 배경은 고구려의 전략·전술, 신라의 방어체계, 고구려-당 관계와 백제부흥운동 등 국제정세의 측면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신라가 낭비성 전투 이후 포천 일대에 구축한 관방체계를 하나의 배경으로 보고자 한다.

660년 고구려는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 교통로를 통해 칠중성을 공격하였다. 비록 고구려군은 칠중성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한 듯하지만,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신라가 한강 이북에 구축한 관방체계가 작동한 것이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된다. 신라는 임진강과 한탄강 남안에 동서방향으로 관방시설을 구축하고 칠중성-대모산성-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진

11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 무열왕 8년 5월 ;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10, 보장왕 20년 5월 ;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中).

117) 서영일, 앞의 책, 1999, 242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329~330쪽.

118) 여호규, 앞의 논문, 2012, 196쪽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 2021, 69쪽.

119)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242~244쪽에서는 660년 칠중성을 차지하면서 확보한 교통로를 따라 남하한 고구려 지상군과 예성강 하구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거슬러 올라 진격한 고구려 수군이 함께 술천성을 공격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말갈이 주력인 고구려 육군은 영서 내륙 지역으로 진군하였고, 고구려군이 주력인 수군은 평양을 출발하여 북한산성을 공격했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2016, 76~80쪽).

을 운용하였다.¹²⁰⁾ 결국 660년 고구려군은 한강~임진강 유역 신라 관방체계의 일부만 무너뜨렸을 뿐이었고 북한산성 공략에는 실패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라는 철원-포천-서울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냉정리산성-성동리산성-반월성-아차산성으로 이어지는 중심방어선을 구축하였다. 포천과 철원의 경계에 위치한 냉정리산성은 철원 방면에서 접근하는 적을 감제하는 보루이며, 성동리산성은 철원 방면과 한탄강 유역에서 진입하는 적을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반월성은 포천지역 관방체계를 총괄하며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공격하는 것을 저지하는 최종방어선이었다고 추정된다.¹²¹⁾ 따라서 661년 고구려는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무력화하고 북한산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영서 내륙 지역으로 우회하는 공격로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67년 당 고종은 웅진도독부의 유인원과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태에게 비열도(卑列道)를 경유하여 평양으로 진군하라고 명하였다.¹²²⁾ 그리고 668년 문무왕은 원정군을 편성하면서 김인태를 비열도총관(卑列道總管)으로 임명하였다.¹²³⁾ 비열도는 비열홀 즉 안변을 중간 거점으로 삼아 서쪽으로 진군하여 평양에 이르는 경로일 것이다. 유인원과 김인태가 지휘한 군사들은 한강 유역을 출발하여 동북 방향으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이용하여 비열홀로 이동하였을 것이다.¹²⁴⁾

120)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138쪽.

121) 서영일, 앞의 책, 1999, 284~292쪽 ; 서영일, 앞의 논문, 2010, 137~138쪽.

12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7년 7월.

12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6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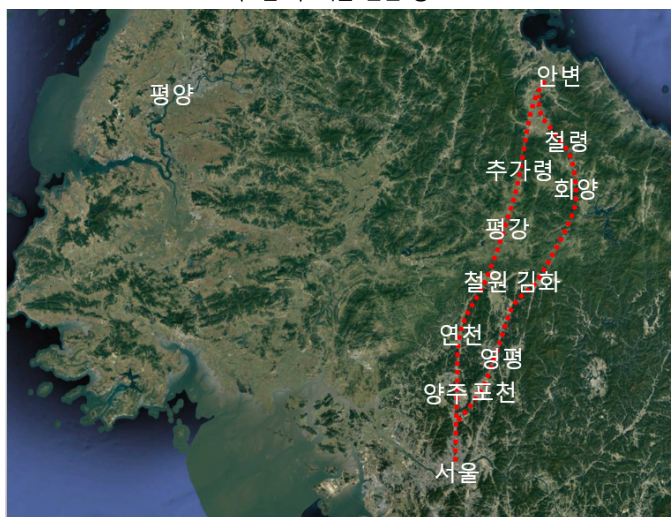
124) 池内宏, 「唐の高宗の高句麗討滅の役と卑列道・多谷道・海谷道の称」, 『東洋學報』 17-1, 1928, 108쪽 ; 앞의 책, 1960, 263~264쪽에서는 강원도의 북한강 유역으로부터 철령을 넘어 안변으로 진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훈, 앞의 책, 2012, 77쪽에서는 서울-의정부-연천-철원-평강-추가령-안변의 경로로 보았다.

한강 유역의 서울에서 안변으로 가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 두 가지가 언급된다. ① ‘서울-양주-연천-철원-평강-추가령-안변’과 ② ‘서울-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안변’이 그것이다.¹²⁵⁾ 이 중 667년과 668년 활용된 경로는 ②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먼저 진평왕이 순행한 곳으로 추정되는 철원 고석정은 철원 남부 지역에 있으며 ②의 영평에서 김화로 가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7세기 중반까지 신라는 ②의 경로를 더 많이 활용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고구려에게 비열홀로 진군하는 것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①보다는 남쪽에 위치한 경로인 ②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①은 ②에 비해 거리가 짧으며 ①의 추가령이 ②의 철령에 비해 평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안변에서 평강까지 긴 골짜기와 협곡이 있다.¹²⁶⁾ 따라서 ①은 대규모 병력의 이동에 적합하지 않다. 즉, 667년, 668년 한강 유역에서 출발한 나당연합군 중 일부는 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을 거쳐 비열홀에 도착하였고, 군비를 재정비한 후 평양성 공격에 나섰을 것이다.

125) 권순진, 앞의 논문, 2013, 327~331쪽; 張彰恩, 「眞興王代 新羅의 北方進出과 對高句麗 領域向方」, 『新羅史學報』 24, 2012, 21쪽; 앞의 책, 2014, 232쪽, 235쪽

126) 高丞嬭, 「18, 19세기 咸境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 1996, 86~87쪽; 최동원,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慶興路의 형성과 기능-」, 『北岳史論』 11, 2020, 56~57쪽.

〈그림 8〉 서울-안변 경로



고구려 멸망 후 비열홀 출신의 가군사(假軍師) 세활(世活)은 평양소성(平壤少城) 전투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다.¹²⁷⁾ 이는 비열홀 방면에서 평양성을 공격한 것이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고구려 멸망전에서 포천지역은 전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비열홀이 평양지역을 공격하고 한강 하류 유역을 방어하는 군사요충지로 부각되면서¹²⁸⁾ 한강 하류 유역에서 비열홀에 이르는 교통로의 군사적 중요성도 높아졌다. 그에 따라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신라군이 비열홀 방면으로 출입하는 관문으로서 관리, 정비되었을 것이다.

나당전쟁기 당군은 평양에 군영을 설치하고 황해도 일대의 고구려 부흥세력을 무너뜨리며 남하하였다. 673년 윤5월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은 호로하(瓠瀾河) 서쪽에서 고구려 부흥세력을 격파

127)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문무왕 8년 10월 22일.

128) 이상훈, 앞의 책, 2012, 75~77쪽.

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삼아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675년 신라군과 당군 간에 전투가 일어난 장소도 대체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찾을 수 있다.¹²⁹⁾ 따라서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신라군이 동북방으로 진출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던 포천지역 관방체계는 나당전쟁기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675년 9월 일어난 매소성(買肖城) 전투¹³⁰⁾는 나당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전투로 인식된다. 매소성의 위치는 연천 대전리산성 내지 양주 대모산성으로 비정하고 있다.¹³¹⁾ 대전리산성은 서쪽으로 한탄강을 건너 동두천에서 양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로와 남동쪽으로 포천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의 결절점에 입지하고 있다.¹³²⁾ 그렇다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대전리산성 일대에 주둔하며 한강 하류 유역으로 진입하려는 당군을 저지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소성을 대모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포천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신라군은 양주 일대에서 남하하려는 당군의 측후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675년 말같은 아달성(阿達城)과 적목성(赤木城)을 공격하였다.¹³³⁾ 말같은 당군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아달성은 강원도 이천, 적목성은 강원도 회양으로 비정된다. 이 전투의 성격에 대해서

129) 나당전쟁의 주요 전환은 이상훈, 앞의 책, 2012, 110~142쪽 및 212~220쪽 참조.

1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9월 29일.

131) 매소성의 위치에 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탐구』 41, 2022 ; 권창혁,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北岳史論』 18, 2023, 259~264쪽 참조.

132)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문물연구』 34, 2018, 112쪽.

13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5년.

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¹³⁴⁾,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가 나당전쟁기에 여전히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671년 신라가 당에게 비열성(卑列城)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한¹³⁵⁾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나당전쟁 초기부터 한반도 서북부에서 남하하는 당군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안변 일대에서 한강 하류 유역으로 침공해 오는 당군에 대비하는 방어전략을 준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당전쟁기에 포천지역이 전장으로 기록된 자료는 없으나, 675년 신라군이 당군에게 승리한 크고 작은 열여덟 번의 싸움 중에 일부는 포천지역이 무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7세기 신라의 대고구려전쟁과 대당전쟁의 주무대는 한강~임진강 유역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당은 한반도 서북부와 동북부에서 한강 유역을 향하여 공세를 가하였다.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구축한 관방시설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고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당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¹³⁶⁾ 그렇다면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신라가 한강~임진강 유역에 구축한 광역의 관방체계를 구성하는 지역 관방체계로 기능하면서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4) 식량 확보를 위한 약탈전(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38쪽), 강원 북부와 함경도 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군사행동(이상훈, 앞의 책, 2012, 219~220쪽), 서북방면의 주공(主攻)을 보조하는 동북방면의 조공(助攻)이 남하하면서 치른 전투(권창현, 「675년 阿達城 전투와 신라의 靺鞨 인식」, 『신라문화』 60, 2022) 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13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11년 7월 「답설인귀서」.

136) 윤성호, 앞의 논문, 2022.

5. 결론

이상에서 시기적으로 5세기 후반~7세기 중반, 공간적으로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포천지역은 광개토왕대에 일시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으나 다시 백제로 귀속되거나 양국의 접경지대로 변모하였다. 475년 장수왕의 남정(南征)을 계기로 포천지역은 고구려에 귀속되고, 이는 6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포천지역 관방 유적 중 고구려 관련 고고자료가 확인되는 곳은 반월성과 성동리산성이다. 반월성은 포천 분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 철원-영평천-포천천-왕숙천을 거쳐 한강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를 감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반월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유구 및 출토 유물은 수량이 적을뿐더러 출토 층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5세기 후반~6세기 중반 고구려가 반월성을 군사 및 행정 거점으로 활용했다고 이해하기는 힘들다. 대신 고구려는 성동리산성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포천지역을 경영하였다.

이 시기 반월성을 비롯하여 포천지역에서 고구려 관방시설 관련 고고자료가 한강~임진강 유역의 다른 교통로에 비해 빈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먼저 한탄강-영평천-포천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는 한강~임진강 유역 교통로 중 우회하는 경로이기에 포천지역의 중요성이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고구려는 원산만 일대의 예(말갈)를 동원하여 한강

유역의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한강 하류 유역을 영유하게 되면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관방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7세기가 되면 변화가 감지된다. 한강 유역을 상실한 고구려는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하면서 한강 유역 회복에 나선다. 공격로는 철원-포천-북한산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였다. 이는 신라가 포천지역의 군사지리적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진평왕이 철원으로 순행하는 등 영서 내륙 지역의 방어체계를 재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고구려는 608년 영서 내륙 지역을 공략하여 신라의 의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였고, 일부 고구려군은 철원-포천 방면을 따라 남하하여 반월성에 소규모 보루를 축조하며 주둔하였다.

고구려가 반월성, 즉 낭비성을 전초기지로 삼아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위협하자, 신라는 629년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로부터 낭비성을 빼앗았다. 이후 신라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를 구축하였다. 『삼국사기』의 낭비성 전투 기사 외에 7세기 반월성에 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7세기 중반 신라와 고구려의 전쟁, 신라와 당의 전쟁이 한강 유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반월성을 중심으로 한 포천지역의 관방체계는 한강~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의 하위에 속한 지역 관방체계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신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삼국지』, 『구당서』
鄭求福·盧重國·申東河·金泰植·權惠永, 『譯註 三國史記』, 서울: 韓國
精神文化研究院, 1997
- 京畿道博物館, 『抱川 城洞里 마을遺蹟』, 1999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3대 하천유역 종합학술조사 I -임진강-』, 2001
- 경기도박물관, 『抱川 自作里遺蹟』 I, 2004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2008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종합보고서-』, 2004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동벽 정비구간 발굴조사
보고서』, 2005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포천 반월산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1996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성-시굴조사보고서-』, 2000
- 서울대학교박물관,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2000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京畿道 抱川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1997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江原道 楊口郡·麟蹄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2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산성 북벽 보수구간』, 2009
- 한백문화재연구원, 『포천 반월성 남벽』, 2019

2. 저서

- 김진영, 『신라 한주지방의 고분과 사회구조』, 서울: 서경문화사, 2021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서울: 혜안, 2006
- 백종오,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 서울: 서경, 2006
- 서봉수, 『한강유역의 기와-신라-』, 고양: (재)백두문화재연구원, 2021

- 서영교, 『羅唐戰爭史 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9
-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68
-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7
-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서울: 주류성, 2012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景仁文化社, 2014
- 정호섭, 『고구려사와 역사인식』, 서울: 새문사, 2016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1954
- 池内宏,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東京: 吉川弘文館, 1960

3. 논문

- 강중훈, “7세기 삼국통일전쟁과 신라의 군사활동”, 『신라문화』 24(2004)
<http://uci.or.kr//G901:A-0001969885@N2M>
- 高丞嬉, “18, 19세기 咸境道 地域의 流通路 발달과 상업활동”, 『歷史學報』 151(1996)
<http://uci.or.kr//G901:A-0001108491@N2M>
- 고창민,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 109(2021)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2>
- 權純珍, “경기지역 新羅 ‘北進期城郭’에 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9(2007)
<http://uci.or.kr//G901:A-0002554292@N2M>
- 권순진, “철원지역 신라산성의 성격”, 『군사연구』 135(2013)
<http://doi.org/10.17934/jmhs..135.201306.307>
- 권순진, “철원지역 성곽의 특징과 성격”, 『인문과학연구』 75(2022)
<http://doi.org/10.33252/sih.2022.12.75.161>
- 권창혁, “675년 阿達城 전투와 신라의 靺鞨 인식”, 『신라문화』 60(2022)
<http://doi.org/10.37280/JRISC.2022.6.60.201>

- 권창혁, “최근 나당전쟁사 연구의 주요 쟁점”, 『北岳史論』 18(2023)
<http://doi.org/10.37288/bukak.2023.18.7.245>
- 금경숙, “高句麗 領域으로서의 北漢江 流域”, 『韓國史學報』 11(2011)
<http://uci.or.kr//G901:A-0001571548@N2M>
- 김규운·성재현, “船里 銘文瓦 考察”, 『考古學誌』 17(2011)
<http://uci.or.kr//G901:A-0003059067@N2M>
- 김강훈,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 138 (2020)
<http://doi.org/10.31218/TRKH.2020.06.138.171>
- 김덕원,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 33 (2019)
<http://doi.org/10.35160/sjekh.2019.12.33.333>
- 김선숙, “고구려의 한강 이북지역 점령지 운영 실태 검토”, 『서울학연구』 69(2017)
<http://doi.org/10.17647/jss.2017.11.69.49>
- 金侖禹, “娘臂城과 娘子谷城考-娘臂城의 位置를 中心으로-”, 『史學志』 21(1987)
- 김진광, “『三國史記』 本紀에 나타난 靺鞨의 性格”, 『高句麗渤海研究』 35(2009)
<http://uci.or.kr//G704-001250.2009.35..005>
- 김진한, “鐵原 孤石亭 新羅碑와 新羅의 鐵原 進出”, 『韓國文化』 83(2018)
<http://doi.org/10.22943/han.2018..83.005>
- 金虎俊, “抱川 半月山城 研究(I)”, 『文化史學』 20(2003)
<http://uci.or.kr//G901:A-0001866788@N2M>
- 文昌魯, “三國時代 抱川지역의 역사 전개와 위상”, 『韓國學論叢』 38(2012)
<http://uci.or.kr//G704-SER000013600.2012.38..003>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2011)
<http://uci.or.kr//G704-000054.2011..82.016>

- 박성현, “신라 통일기 한주의 물자 이동과 조운-하남 선동 출토 명문
기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21(2021)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2094175@N2M>
- 방유리, “포천 반월산성 출토 신라유물 연구”, 『史學志』 41(2006)
<http://uci.or.kr//G901:A-0002783388@N2M>
- 박종서, “고구려 낭비성 위치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7(2010)
<http://doi.org/10.36093/ks.2010..17.004>
- 朴鐘書, “高句麗 南進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박종서, “6세기 중반~7세기 高句麗·新羅의 境界와 그 변천”, 『사학지』
62(2022)
- 박종서, “고구려 장수왕대 한강유역 진출과 南進路 운영”, 『서울과 역사』
113(2023)
<http://doi.org/10.22827/seoul.2023..113.001>
- 배기동, “선사시대”, 『抱川郡誌(上)』(1997)
-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城郭의 分布와 性格”, 『京畿道博物館 年報』
3(1999)
<http://uci.or.kr//G901:A-0001459624@N2M>
- 백종오, “抱川 城洞里山城의 變遷過程 檢討”, 『先史와 古代』 20(2004)
<http://uci.or.kr//G901:A-0001923363@N2M>
- 白種伍, “南韓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2007)
<http://doi.org/10.23024/pah.2007..26.279>
- 백종오, “臨津江·漢灘江流域 古代 關防體系와 河川路”, 『지방사와 지방
문화』 25-2(2022)
<http://uci.or.kr//G901:A-0010967789@N2M>
- 徐奉秀, “抱川 半月山城 기와의 屬性分析과 製作時期”, 단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서영교,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軍史』 81(2011)
<http://doi.org/10.29212/mh.2011..81.1>
- 徐榮一,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1995)
<http://uci.or.kr//G901:A-0001589293@N2M>

- 徐榮一, “抱川 半月山城 出土 〈馬忽受解空口單〉銘 기와의 考察”, 『史學志』 29(1996)
- 徐榮一, “抱川地域 山城의 配置와 영속관계”, 『文化史學』 6·7(1997)
<http://uci.or.kr//G901:A-0001762303@N2M>
-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2000)
<http://uci.or.kr//G901:A-0002192984@N2M>
- 徐榮一,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高句麗研究』 11(2001)
<http://uci.or.kr//G901:A-0002194069@N2M>
- 서영일,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2006)
<http://uci.or.kr//G901:A-0002290420@N2M>
-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체계”, 『고고학』 9-1 (2010)
<http://uci.or.kr//G901:A-0003455639@N2M>
- 서영일,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百濟文化』 56 (2017)
<http://doi.org/10.35300/bjclab.56.0.201702.199>
- 宋容德, “高麗時期 國境地域의 州鎮城編制”, 『韓國史論』 51(2005)
- 신광철, “강원도 말갈과 고구려의 남진”, 『한국상고사학보』 105(2019)
<http://doi.org/10.18040/sgs.2019.105.149>
- 신광철, “관방체계를 통해 본 고구려의 국가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신광철, “임진강 유역 점유 세력의 변천”,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http://doi.org/10.35160/sjekh.2022.08.41.5>
- 심광주, “임진강 유역 삼국 성곽과 관방체계”, 『임진강 유역, 분단과 평화의 고고학』, 경기문화재단연구원·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8)
- 안성현·최광훈, “연천 대전리산성의 성격 연구”, 『문물연구』 34(2018)
<http://doi.org/10.23117/jcr.2018.34.34.004>

- 양시은,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46(2014)
<http://uci.or.kr//G901:A-0003498807@N2M>
- 오강원, “三國時代 ‘牛’系地名의 歷史地理學的 脈絡과 性格”, 『江原民俗學』 22(2008)
<http://uci.or.kr//G901:A-0002568787@N2M>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2012)
<http://uci.or.kr//G901:A-0003116377@N2M>
- 여호규, “6세기 말~7세기 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2002)
<http://uci.or.kr//G901:A-0001724257@N2M>
- 여호규, “7세기 국제정세 변동과 고구려의 외교적 선택”, 『내일을 읽는 한·중관계사』, 알에이치코리아(2019)
- 윤성호, “『삼국사기』 溫達傳 所載 阿朮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學報』 66(2017)
<http://doi.org/10.21490/jskh.2017.02.66.45>
- 尹星鎬, “新羅의 漢江流域 領域化 過程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8
- 윤성호,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 경계』 110(2019)
<http://uci.or.kr//I410-ECN-0101-2019-911-000531734@N2M>
- 윤성호,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 110(2019)
<http://doi.org/10.29212/mh.2019..110.125>
- 윤성호, “아차산성 출토 명문기와를 통해 본 新羅 下代の 北漢山城”, 『韓國史學報』 74(2019)
<http://doi.org/10.21490/jskh.2019.02.74.289>
- 윤성호, “서울·경기지역 삼국시대 산성 정비와 진정성 유지 방안”, 『先史와 古代』 67(2021)
<http://uci.or.kr//G901:A-0010599865@N2M>

- 윤성호, “백제 한성기의 관방체계 재검토”, 『한성백제의 도성과 지방성 (백제학연구총서 정점백제사21)』, 한성백제박물관(2022)
- 이도학, “溫達의 南下徑路와 戰死處 阿旦城 檢證”, 『東아시아古代學』 32(2013)
<http://uci.or.kr//G901:A-0003321754@N2M>
- 이도학,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2023)
<http://doi.org/10.19120/cy.2023.4.52.109>
- 이상훈, “삼국통일기 화랑정신과 김유신의 리더십”, 『국학연구논총』 17(2016)
<http://doi.org/10.22861/tiks.2016..17.31>
- 이상훈, “나당전쟁기 매소성의 위치와 매소성전역의 위상-최근 대두되는 ‘신설’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41(2022)
<http://doi.org/10.35160/sjekh.2022.08.41.125>
- 이영수,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110(2023)
<http://doi.org/10.37331/JKAH.2023.6.110.219>
- 李元根, “百濟 娘臂城考”, 『史學志』 10(1976)
<http://uci.or.kr//G901:A-0002898838@N2M>
- 이정범, “감시권역 분석을 통해본 경기북부지역 보루의 사용주체와 기능”, 『高句麗渤海研究』 37(2010)
<http://uci.or.kr//G901:A-0002830427@N2M>
- 이정빈, “임진강·한탄강 유역의 고구려 지명과 그 의미”, 『사학연구』 134(2019)
<http://doi.org/10.31218/TRKH.2019.06.134.39>
-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 한길사(1995)
- 임기환,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2006)
- 임평섭, “신라 중고기 진흥·진평왕의 북한산주 설치와 친정”, 『서울학연구』 81(2022)
<http://doi.org/10.17647/jss.2020.11.81.107>

- 장창은, “아차산성을 둘러싼 삼국의 영역 변천”, 『史叢』 81(2014)
<http://doi.org/10.16957/sa..81.201401.107>
- 장창은,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911-001975552@N2M>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의 발발과 시대적 의미”, 『新羅史學報』 45(2019)
- 전덕재, “牛首州의 설치와 변천에 관한 고찰”, 『강원문화연구』 28(2009)
<http://uci.or.kr//I410-ECN-0102-2022-900-000875762@N2M>
-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軍史』 91(2014)
<http://doi.org/10.29212/mh.2014..91.149>
- 전덕재, “신라의 北進과 서북 경계의 변화”, 『韓國史研究』 173(2016)
<http://uci.or.kr//I410-ECN-0101-2017-911-000865193@N2M>
- 전덕재, “신라 진흥왕의 순행과 순행로 고찰”, 『新羅史學報』 57(2023)
<http://uci.or.kr//G901:A-0011113454@N2M>
- 전상우,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旦城 공격”, 『韓國古代史研究』 89(2018)
<http://doi.org/10.37331/JKAH.2018.03.89.175>
- 정덕기, “신라 진평왕대 對隋 외교와 請兵”, 『新羅史學報』 52(2021)
<http://uci.or.kr//I410-ECN-0101-2021-911-001985571@N2M>
- 정동민,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임진강·한강 유역 진출과 남방 접경”, 『한국고대사탐구』 42(2022)
<http://uci.or.kr//G901:A-0011027781@N2M>
- 정원주,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高句麗渤海研究』 40(2011)
<http://uci.or.kr//G701:C-00056467230@N2M>
- 車敏浩, “三國時代 城郭의 雉城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최동원, “포천 지역사 연구의 과제-慶興路의 형성과 기능-”, 『北岳史論』 11(2020)
<http://uci.or.kr//G901:A-0010949505@N2M>

- 최영인, “4세기~5세기 초반 고구려의 남진과 임진강 유역 지배방식”, 『청람사학』 31(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116557@N2M>
- 최종택, “南韓 地域 高句麗 土器의 性格”,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2007)
- 최종택, “아차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성과와 과제”, 『史叢』 32(2014)
<http://doi.org/10.16957/sa..81.201401.3>
- 한준수, “신라 통일기 新三千幢의 설치와 운용”, 『韓國古代史研究』 78(2015)
<http://uci.or.kr//G901:A-0003779740@N2M>
- 한준수, “신라 통일기 三邊守幢의 성립과 의미”, 『韓國古代史探究』 22 (2016)
<http://doi.org/10.35160/sjekh.2016.04.22.233>
- 韓準洙, “신라 통일기 闕衿幢·二闕幢의 설치와 확대”, 『韓國學論叢』 47(2017)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311287@N2M>
- 홍영호, “고려시대 東界 지역의 戍 조사 연구”, 『軍史』 99(2016)
<http://doi.org/10.29212/mh.2016..99.39>
- 황보 경, “603년 北漢山城 전투 고찰”, 『軍史』 58(2015)
<http://uci.or.kr//G901:A-0003672322@N2M>
-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朝鮮學報』 54(1970)

(Abstract)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and Banwol fortress from the late 5th to mid-7th centuries

Kim, Kang-hun

This article is a study that examines the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which is centered on Banwol Fortress, from the late 5th to the mid 7th centuries.

Since 475, Goguryeo had built a number of defense facilities in the Han River to Imjin River basin. However, Goguryeo's fortresses are not clearly identified in the Pocheon area. This is because the main route in the northeast-southwest direction formed along the Chugaryeong Tectonic Valley did not match the southward direction of Goguryeo. In addition, Goguryeo didn't need to attack downstream of the Han River by mobilizing Ye (Malgal) in the Wonsan Bay area. Therefore, the Banwol Fortress in the late 5th and mid 6th centuries was not actively used as a defense facility. Instead, Goguryeo operated the Pocheon area centering on the Seongdong-ri Fortress.

Goguryeo took military action to recover the Han River basin in 603. At this time, Goguryeo used a route leading to Cheorwon-Pocheon-Bukhansanseong. With this battle, Silla confirmed the military geographical importance of the Pocheon area. Goguryeo attacked the midwest inland region of Gangwon and advanced toward Cheorwon-Pocheon in 608. Goguryeo threatened Silla's domination of the Han River basin by occupying the Nangbi Fortress, now presumed to be Banwol Fortress. Silla attacked the Nangbi Fortress and occupied it in 629, and after that, Silla constructed the military defence system of Pocheon, centering on Banwol Fortress. This served as a factor facilitating Silla winning the war against Goguryeo and Tang.

Keywords : Goguryo, Silla, Han River basin, Pocheon, Banwol
Fortress, Seongdong-ri Fortress, Nangbi Fortress